

<Note>

생물다양성 특집원고에 대하여

이 상 옥¹ · 이 원 철*

¹한양대학교 철학과,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On the Special Section on Biodiversity

Sang-Wook Yi¹ and Wonchoel Lee*

¹*Department of Philosophy,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Abstract - The present not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hree succeeding scientific papers, which gives an insight about the multidisciplinary studies and opinion on Biodiversity. These three papers are based on the seminar series of biodiversity organized by the department of life science, Hanyang University during 2011 ~ 2013.

Key words : CBD, genetic diversity, species, intellectual property

생물다양성 (biodiversity)은 생물학적 다양성 (biological diversity)의 줄임말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 전에도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이나 경제학적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전학의 발전과 생물학 연구 결과의 상업화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물다양성은 전통적으로 강조되던 종 (species) 다양성을 넘어 분자생물학 수준의 다양성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유엔이 주도하여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이 체결되던 다음에는,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나고야 의정서 등의 형태로 마련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의 함의나 그 중요성은 생물학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역까지 미치게 되었다.

생물학자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은 별다른 설득이 필요하지 않은 자명한 것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생물다

양성이 최근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생물다양성이 갖는 본질적 가치 이외의 다른 사회적, 제도적 이유가 있고 이에 대해 생물학자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여러 모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특집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세미나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일부 정리하여 꾸미게 되었다. 생물다양성의 여러 측면을 다룬 과학기술학, 과학사, 해양생물학자의 글을 함께 엮어 생물다양성의 중층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첫 번째 논문 (Back and Lee 2014)은 최근 생물다양성 협약이 국제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자주 쟁점으로 등장하는 사안을 개관한 후, 각 사안에 대한 국내의 대응 양상을 해양생물학 영역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생물학자들도 생물다양성 협약의 내용이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은 자신들의 연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물다양성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는 보다 많은 생물학자

* Corresponding author: Wonchoel Lee, Tel. 02-2220-0951,
Fax. 02-2296-7158, E-mail. wlce@hanyang.ac.kr

들의 참여가 필요하기에 관련 쟁점에 대한 소개는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논문(Yi 2014)은 최근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생물 특허의 역사를 다룬다. 특히 저자는 생물특허에 대한 강조가 생물학에 국한된 현상이라기보다는 20세기 대학, 특히 미국대학의 상업화 과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대학 당국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방정부의 제도적 대응이 어떻게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연구를 변화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의 문제를 누가 유전정보를 소유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특정 판단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과 연관됨을 보여준다.

마지막 논문(Hyun 2014)은 현재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 연구의 역사를 살펴본다. 특히 저자는 현재 생물학자들이 공유하는 생물다양성 개념이 역사적으로는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음을 설명한다. 이 논문은 이처럼 생물다양성 논의의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현재 가진 생물다양성 개념이 얼마나 생물학자들의 연구 관행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연구 관행이 어떻게 인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처럼 통상적인 과학의 경계 바깥의 쟁점과 연결되어 왔

는지를 보여준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이 세 편의 글 이외에 생물다양성의 다른 측면을 다루는 몇 편의 글이 더 제안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우선 이번에 묶인 세 편으로 특집호를 꾸미게 되었다. 이번 특집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생물다양성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룰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 Back J and K Lee. 2014. The Present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maritime agenda. *Korean J. Environ. Biol.* 32:397-402.
- Hyun J. 2014. Changing Methodologies and Reshaping Concepts in Biodiversity Science: A Historical Review of Research on Human Genetic Diversity. *Korean J. Environ. Biol.* 32:413-425.
- Yi D. 2014. The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Research in the Context of Shifting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in the Twentieth Century. *Korean J. Environ. Biol.* 32:403-412.

Received: 25 November 2014

Revised: 6 December 2014

Revision accepted: 8 December 2014